

국제라이온스협회, 브라이언 시한 신임 국제회장 선출

(2022년 7월 1일,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104 차 라이온스 국제대회에서 브라이언 시한 씨가 세계 최대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의 2022-2023 회기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루얼 컴퓨터 컨설턴츠의 설립자이자 CEO 인 시한 회장은 임기 동안 국제라이온스협회와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우리 협회는 라이온이 되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봉사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한 회장은 지역 클럽의 강화와 지속적인 회원 증가를 목적으로 2021-22 회기에 시작된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을 두루 살피는 한편, 나날이 증가하는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클럽들이 야심 찬 봉사사업을 실시해 지역과 지구촌에 미치는 라이온스의 영향을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그 외에도 올해 3억불 모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제재단의 캠페인 100의 성공을 기반으로 라이온들과 협력할 것이다.

올해 시한 회장의 표제는 ‘함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다. 이 표제를 통해 라이온과 전 세계인에게 팀워크와 혁신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혼자서도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겠지만 함께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지역사회와 세상을 모든 이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한 회장은 말한다.

시한 회장은 1991년 버드아일랜드 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한 후 글로벌 회원증강팀 연락원, 글로벌 지도력팀 지역지도자, 본부운영 및 재정위원회 위원장, 라이온스 대학 코디네이터, 지명이사 등 협회의 여러 요직을 역임했다.

모범적인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클럽 라이온, 설립자 회원증강상, 국제회장 지도력 메달, 국제회장상(다수), 협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상인 친선대사상 등을 수상했다.

라이온스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한 회장은 버드아일랜드 시민상공회 회장, 러닝 편하우스 이사, 다양한 학교 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해왔다. 2011년에는 미국 미네소타 중소기업협회(SBA)에서 수여한 올해의 소기업가 상을 수상했다.

시한 회장과 라이온이자 PMJF인 로리 여사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실천하며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극 봉사하는 참봉사인 가족이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소개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봉사단체이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48,000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

1917년부터 라이온들은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인도주의적 봉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제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봉사의 영향력을 확장했다.

라이온스는 시력, 환경, 소아암, 기아, 당뇨병 및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에 주력하며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웹사이트 lionsclubs.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